

[통일플러스](#)
[통일 스토리](#)
[남북공감](#)
[민주평통 365](#)
[즐거운 통일](#)
[심포, 느낌표](#)


## 국제협력과 국민적 신뢰 바탕으로 한 병신년 남북관계 '맑음' 예상 '박근혜정부 통일·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좌담



**통일 돋보기**  
비슷하면서도 다른  
남북한 대학교육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부천사, 가수 김강훈  
'통일된 온전한 나라 후세에 물려줘야'



**통일 Talk**  
우리가 쓴 기사,  
통일공감대 넓히는 데 도움 되겠죠?

### 포커스

#### 국제협력과 국민적 신뢰 바탕으로 한 병신년 남북 관계 '맑음' 예상

2015년 남북관계는 연초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북한지리 도발로 인해 '연전시...

[더보기](#)


**행복한 풍경**  
탈북민 어깨동무멘토링 2년,  
어느새 동네 이웃!



**중학생 통일위즈왕**  
2015년 중학생 퀴즈왕 최종 결선



**Today 남북**  
70년 분단에도  
비슷한 남북한의 설 풍습



**좌승우등 남한 격응기**  
가족 없이 홀로 맞는 신년,  
내년엔 더욱 따뜻하길



**운영·상임위원회의 합동회의**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NUAC News**  
'통일, 경제가 말한다' 제1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열려



**느낌 있는 여행**  
비 오는 혹은 눈 오는  
제주특별자치도



**통일토크**

고3 스트레스 없는  
통일대한민국!!



**통일레시피**

온 가족 즐기는 석쇠구이  
항경북도 굿산적



**이벤트 당선작**

'통일 등불을 밝혀라' 당선작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통일



**웹진평가**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으신가요?



모바일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지난호보기

이벤트 당첨자발표 >



한국문화홍람지원회

(100-85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전화번호 : 02-2250-2300



구독신청 | 지난호보기 | 구독해지 | 웹진개선여견



## 국제협력과 국민적 신뢰 바탕으로 한 병신년 남북관계 '맑음' 예상 '박근혜정부 통일·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좌담

2015년 남북관계는 연초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묵함지뢰 도발로 인해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됐다가, 8.25합의 이후 이산가족상봉, 차관급 회담에 이르는 등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정부는 통일외교를 통해 한국의 통일외지를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e-행복한통일'은 2016년 신년을 맞아 지난 3년간 추진됐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12월 13일(일) 11:00, 통일연구원장실

**좌담** 백승주 前 국방부 차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 2015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내년도 전망은?

〈최진욱〉 2015년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일관된 노력을 통해 국제적 신뢰와 국민적 신뢰를 쌓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중·대미 외교를 돈독히 했고 한국이 통일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어요. 국내에서는 통일문제에 있어 '남남갈등'이 사라질 정도로 통일친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고 통일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확대됐죠. 이



러한 성과가 지금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차분하게 통일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 국내적 국제적 통일친화적 분위기가 성숙해 있어 남북관계가 트이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에 비록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대화를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대화 의지가 강한 데다, 통일친화적 사회분위기와 국제적 협력분위기에 힘입어 남북관계가 대결모드에서 대화모드로 전환됐는데, 이 분위기는 적어도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 백승주 前 국방부 차관

〈백승주〉 맞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일관성을 갖고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통일준비 분위기가 확산됐고 통일외교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남북한 군사관계 측면에서 봐도 통일준비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북한이 도발에 그치지 않고 준전시상태까지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이에 동요하지 않음으로써 남북한 군사관계를 상당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통일준비와 관련해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목함지뢰 도발시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그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남북 당국간 회담이죠.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내실을 다지면서 당국자회담을 위한 조치를 취해 가고 있어요. 얼마 전 남북한 차관급회담이 열렸는데 회담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이는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개방, 경제문제를 대한민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모멘텀으로 잘 관리해 가면 2016년에도 남북관계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주변국 정세 및 국제 통일환경 전망은?

〈최진욱〉 박근혜정부는 통일외교를 위해 힘을 쏟았고 성과도 컸다고 봅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처음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해낸 회담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북한은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북한 핵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했잖아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나 남북이산가족상봉, 차관급 회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이러한 주도적 통일외교의 성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밖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많은 나라와의 통일외교에 공을 들였고 그 성과 역시 컸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과거와 달리 이제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통일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걸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된 거죠. 통일외교 성과가 지금 당장 눈에는 안보이지만 한국은 통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 협력을 얻어냈고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등 엄청난 통일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큰 힘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백승주> 박근혜정부가 펼친 통일외교의 가장 큰 성과는 '주변국이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관념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미중일러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진리인 것처럼 통일정책을 펴왔어요.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통일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큰 비전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주변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통해 동북아 불안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통일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국방부 차관 재직시절 31개월간 각국의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또한 지난 서울안보대화에서 직접 대통령께서 통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참가자들, 심지어 중국학자들까지도 대한민국의 통일에 공감하며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걸 보고 확실히 통일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와 함께 민주평통이나 통일연구원 등 통일 관련 국가기관들도 대통령과 함께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봐요. 앞으로도 '통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전과 담론을 만들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은?

<백승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2015년 연초에 가장 걱정했던 건 4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였고,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려했는데,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북한의 내부적인 원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했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봐요. 다만 아직까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는데 '핵이 북한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북한권력층에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최진욱>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 자주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는 딜레마를 안게 됐고, 다급해지니까 도발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와 달리 북한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인권을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원칙'이 '강경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올바른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에 국제협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사자로서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협력을 유지해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2016년에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 깨닫고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계속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사자로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백승주〉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나, 내부 엘리트의 교체속도나 교체방법으로 미뤄보아 권력관리가 거칠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북한체제가 안정되고 권력이 원활하게 관리되려면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돼요. 따라서 외향적으로는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 질적인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북한 지도자들은 '핵을 내려놓으면 많은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불안요인은 2016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북심리전 방송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러한 불안요인을 북측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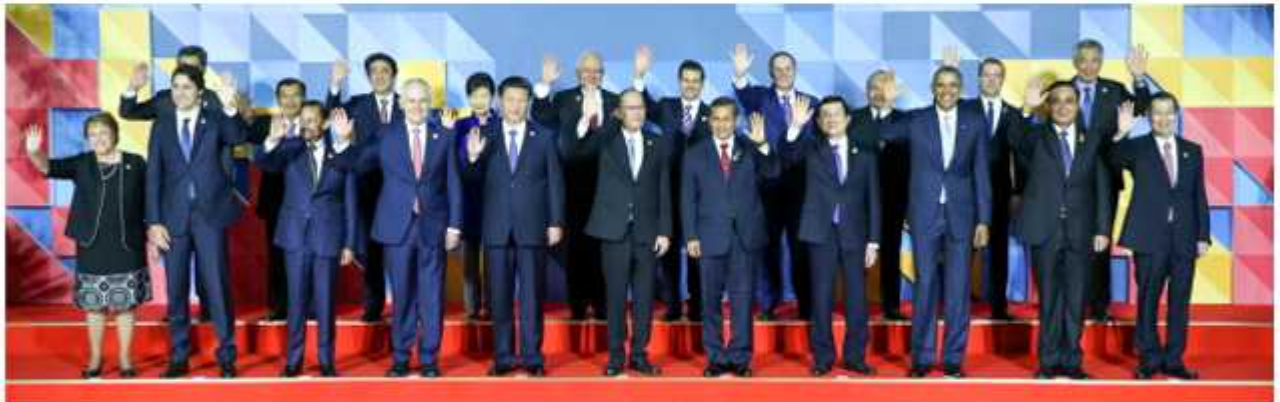


〈최진욱〉 북한 정권은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어느 때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내부 안정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어요. 외부는 핵으로, 내부는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장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장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화가 정책적으로 선언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돈주'라 불리는 제3의 계급, 즉 자본가들이 생기는데 이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북한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개혁개방을 하다 안 되면 도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앞으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상황이 올 수 있어요. 현재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는 건 내부적 요인 때문입니다. 북한이 시장화를 계속할 경우 욕구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한국을 이용해 미국과 대화하려는 장기적 포석이 깔려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위기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예단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변화 유도 정책과 함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이 둘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2016년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최진욱〉 현재 국제협력을 다지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면서 ‘통일’이라는 대장정의 항로에 들어섰는데 단 한 가지, 남북간 신뢰회복 부분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의 호응도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숙제인 거죠. 무엇보다 북한이 핵문제를 고집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해요. 덧붙여,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 들뜬 열기가 감지되면서 정상회담이나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선부른 기대를 해서는 안돼요. 물론 차관급 회담에서 성과를 내면 장관급 회담을, 또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목표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지금의 기초를 잘 유지해야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석도 지켜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대비할 때고, 남북관계는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적인 기대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해요. 현재 남북관계는 국제협력이나 국민적 지지기반을 유지하면서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요. 이런 노력과 성과를 축적해 나가다 보면 에너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꼬가 트일 경우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백승주〉 지금 시대정신과 시대언어는 ‘통일준비’입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이 통일에 대해 합의하고 사회 전분야가 신속하게 통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위기 혹은 비상사태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차관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요. 목함지뢰 도발 때도 철저히 준비해서 상황을 잘 관리했던 것처럼 사안별, 상황별로 유관기관들이 큰 틀에서 통일 준비를 해 나가되, 도발과 위기조성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6년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겁니다. 낙관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좋은 방향으로 관리,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리. 기자회견 / 사진. 고영민, 청와대, 연합뉴스〉

# “비슷하면서도 다른 남·북한 대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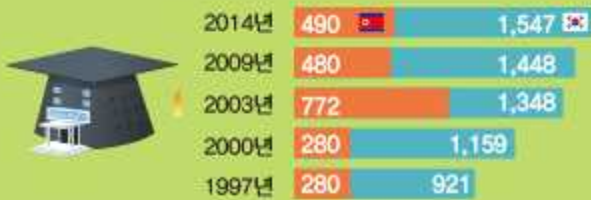
## 대학교육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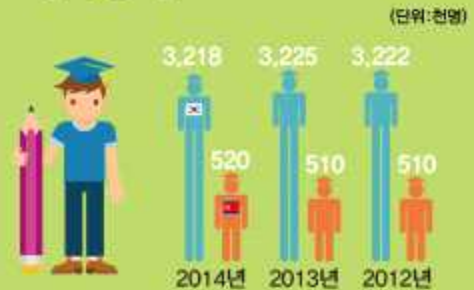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2014년 기준)

- ※ 남한: 1951년 3월에 6-3-3-4제의 기간학제를 확립, 부분 수정 후 현 체계 유지.
- ※ 북한의 종합대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 등 3개이고 공장, 농장, 여장대학 등 야간대학과 아공계 단과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계 대학의 비중은 극히 낮다.

## 대학 수



## 대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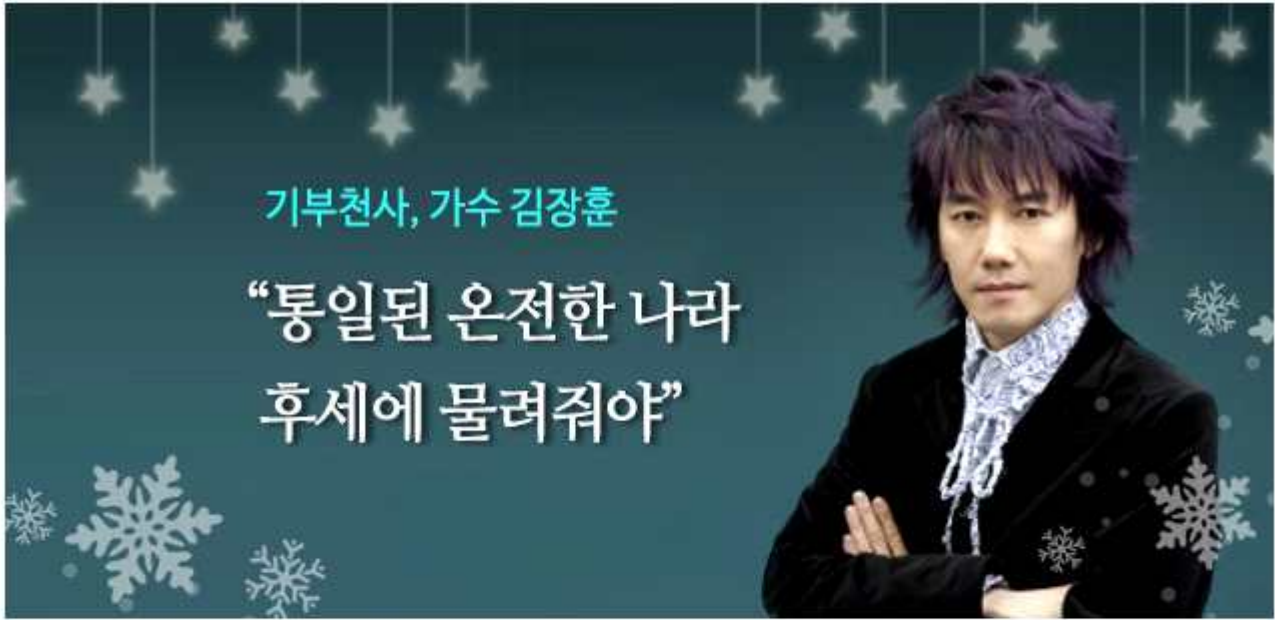
- ※ 북한의 2002년 이전자료는 4년제 대학만이며, 2003년부터는 전문대학, 농장대학, 공장대학, 여장대학 포함.
- ※ 남한은 2012년까지 조금씩 증감을 거듭했으나 북한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동일하게 유지.
- ※ 2003년 북한 대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는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대학기관 수를 늘렸기 때문.



# 대학 진학률



※ 진학률(%)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X 100  
※ 남한 대학생 448,817명 / 고교 졸업자 632,983명(2014년 기준)  
※ 북한 진학률은 통일연구원 자료



누구나 연말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기 마련이지만, 각종 자선공연과 기부활동 등으로 유독 정신없이 바쁜 가수가 있다. 언제부터가 '기부'의 아이콘이 돼버린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 씨다.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바로 세우는 캠페인과 인권신장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그는 가끔 가수인지 사회운동가인지, 자선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에는 자신의 신곡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염원 임정대장정'의 출발지인 중국 대련 여순감옥소에서 33명의 세계 청년들과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 '통일염원 임정대장정'에서 청년들과 안중근 의사 추모



민주평통이 2015년 임시정부수립 96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지역회의 주최로 개최했던 '광복 70주년 기념 세계한인청소년과 함께 1만5천리 통일염원 임정대장정'.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8일간 실시한 '통일염원 임정대장정' 첫날, 대련 여순감옥소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추모식 겸 출정식에 한 손님이 찾아왔

다. 바로 자신의 신곡 발매를 하루 앞둔 가수 김장훈 씨. 주최 측과 사전에 약속된 바도 있지만, 신곡 발표일에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것이 뜻깊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이곳 여순감옥소는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144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김장훈은 청년 33인과 7박 8일간 대장정 일정을 전부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틀간 일정을 동행하면서 독립군가를 함께 불렀으며, 독립군의 입장이 되어 스토리를 만들고 발표하는 미션도 참가했다. 이후 청년들은 여순감옥소를 출발해 단동의 압록강철교와 북한접경지역을 탐방했고, 충칭·류저우·항저우·상해 임시정부, 광저우 한국학교 및 황포군관학교를 방문했으며 우한의 위안부 할머니택에 들른 다음 상해 윤봉길의사 추모행사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 교도소 공연투어, 재소자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회 되길

얼마 전인 12월 21일에는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위해 단독 공연도 열었다. '친구'를 주제로 대한민국스포츠험합창단, 수용자들로 이뤄진 밴드·중창단과 함께 한 이날 공연은 많은 재소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줬다. 그는 청주교도소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화성교도소를 비롯해, 내년에 만 총 6번의 교도소 콘서트투어를 계획하는 등 공연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장훈 씨는 이미 10년 전부터 교도소 공연을 기획해 왔으며, 교도소 수용자들이 진정으로 느꼈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포용의 한국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온 김장훈 씨는 '기자들이 뽑은 2001년 최고의 선행 연예인' 선정을 시작으로 2008년 '제6회 자랑스런 문화인상', '2009 대한민국 나눔대상 통일부장관상', 2010년 '제10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을 받아왔다. 특히, 2013년에는 보육시설 후원, 서해안 살리기 운동, 중국 사막화 방지 등 1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며 봉사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그의 공익 활동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미국, 중국 등지에서 공연 수익금 전액을 현지에 기부하고, 미국 경론지에 꾸준히 공익 광고를 해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돼 2012년 미국 LA 공연 도중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김장훈 씨에게 그간 지속적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기부활동을 해 온 이유를 물었더니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면 스스로의 마음도 따뜻해지기 때문이란다. 또한 "기부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며, "타인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더 큰 복이 찾아온다는 섭리를 몸소 체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기부중독증'에 걸린 건 아닐까? 김장훈 씨는 "그건 중세가 심할수록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되묻는다. 언젠

가 그는 1미터 당 1원씩 기부하는 마라톤 행사를 위해 야간 비행기를 타고 광으로 떠나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마라톤을 뛴 적이 있다. 마라톤은 종착지가 있지만 그의 기부활동은 종착지가 없는, 멈추지 않는 마라톤처럼 보인다.



▲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1월 24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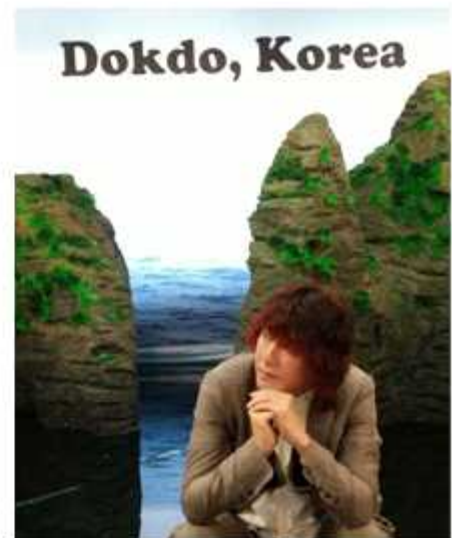


▲ 11월2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관 '연탄을 부탁해' 행사에 참여해 연탄배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 독도를 위해서라면 가수도 포기할 수 있어

'기부천사'와 더불어 가수 김장훈을 상징하는 또 다른 별칭은 바로 '독도지킴이'다. 2008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그의 독도에 대한 무한애정은 5천만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인정할 정도가 됐다. 김장훈 씨는 "독도를 위해서라면 가수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있어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학계지원 및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독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의 성공적인 제작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할 만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특히, 서경덕 교수와 더불어 뉴욕타임스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고 독도아트쇼와 위안부특별전 등 문화와 예술을 통한 홍보전략을 발전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분단 현실 알리고, 이슈화 하는 데 힘 보탬 것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김장훈 씨의 바람은 '통일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한반도의 통일문화 진작과 국가위상 제고, 화해·협력 풍토 조성에 힘쓰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제5회 통일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는 2013년 8월,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 알리기 위해 'DMZ 세계 평화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 경기도가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주최한 DMZ 세계평화콘서트는 김장훈 씨가 총기획을 맡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당시 콘서트 총감독을 맡았던 김장훈 씨는 “단순히 DMZ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가 평화롭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외에 머물면서 보니 외국인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김장훈 씨는 어머니의 고향이 평안도라고 했다. 해방 이듬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월남했다가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가족의 버팀목이 돼주셨다며, 어머니의 고향에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독도를 지키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알리고 이슈화 하는 데에도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다.

<글. 고영민 / 사진. 김장훈 페이스북, 공연세상,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



2015년 한 해,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과 전국 지역협의회에서 펼친 각종 통일관련 행사장에는 대학생기자단과 여성통일생기자단이 동행하며 현장에서 느낀 통일 열기를 글로 전했다. 통일준비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통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대학생기자단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사를 쓰며 재능기부를 펼치는 여성기자단들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 여성기자단 토크 참가자



**김연행 자문위원(부산 강서구)**

한반도 평화통일과 수학교육의 강화·혁신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해준다고 굳게 믿는 통일 일꾼이자 수학선생님.



**정영옥 자문위원(대구 달성군)**

싸이월드 포스팅부터 시작해 블로거, 여성기자단까지 다양한 활약을 하며 내공을 쌓은 기자단 최고 연장자이자 베테랑.



**서순주 자문위원(전남 영광군)**

통일사업, 탈북민지원 등 행사에 불참한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여성기자.

**김민재(전북대, 청년자문위원)**

민주평통 최연소 자문위원이자 통일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우들과 통일의 꿈을 나누고 있는 대학 새내기.



**이다영(충남대, 청년자문위원)**

교내 영자신문사 편집국장 출신의 재원. 탈북민 지원,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으며 ODA(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일하는 게 꿈.



**김연경(한남대)**

북한의 예쁜 여성들과 경쟁해야 할 것 같아 조금 걱정되지만, 그래도 꼭 통일은 필요하다고 믿는 미래 방송기자.



2015년 민주평통 기자단 활동 어땠나요?

**다영**

17기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지만 통일을 위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생각에 안타까웠는데,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제 의견과 소신을 담아 저만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대학생기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식견이 넓어진 것 같아요. 민주평통 대학생기자단 활동은 통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 더욱, 통일에 관심이 없다 해도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특히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영옥**

처음에는 민주평통 행사에서 사진촬영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국민들에게 통일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기자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개인블로그에도 계속 기사를 올리게 됐어요. 친구들은 정년퇴직한 뒤에 편안하게 산다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50대 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언젠가는 주위에 되돌려주고 가겠다'고 맘을 먹었다가, 건강이 회복된 이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슴 뜨거운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발산되고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 민재

통일과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통일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민주평통 기자단모집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어요. 게다가 이번 17기 출범식에서는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행사 당일에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각계 다양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2030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뜻깊은 경험을 했던 한 해였어요.

### 서순주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더니 기자단 권유를 받았어요. 16기 때 많은 활동을 했고, 느낀 것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기사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통일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내는 것도 낯설지 않고요. 몇 년간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기사를 쓰면 좋을지 보이는 것 같아요.



## 기자단 활동으로 넓어진 시야, 깊어진 통일열망!

### 다영

대전 동구협의회에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에 취재를 나간 적이 있는데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이모, 가족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느끼니까 이분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만난 한 탈북민 아주머니는 북한에서 데리고 오지 못한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중에 집에도 놀러 오라면서 제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탈북민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일반 국민들도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것 같아요.

### 정영옥

맞아요. 취재를 다니다 보면 탈북민들과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데면데면하다가도 몇 번 보고 나면 스스로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사진 찍은 걸 보내주면 고마워하더라고요. 어제도 나는 못 보고 지나쳤는데 대구 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탈북민이 뛰어와 팔짱을 끼면서 친언니, 이모처럼 반가워하더라고요. 확실히 우린 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재**

저는 최근 전주시협의회 탈북민 멘토링 프로그램인 '한일역사탐방'에 동행했어요. 함께 역사유적지를 돌고 체험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아이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탐방 도중 식사를 했을 때 한 탈북민께서 '이런 밤을 먹고 사는 남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단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영옥**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여성컨퍼런스'에 취재를 갔는데, 해외 자문위원들의 통일염원과 애국심에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전 세계 여성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고 해외동포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애국심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것처럼 열정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현장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자단들은 그런 걸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자부심과 사명감이 큰 것 같아요. 그날 사진을 2천여 장 찍었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발바닥이 불이 날뻔 했죠(웃음).

**연경**

저는 아무래도 17기 출범식 현장 취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님들이 대학생기자단이라고 예뻐해 주시고 잘해주셔서 좋았어요. 지난 8월에 대전통일동아리 학생 100명이 워크숍을 갔는데 날이 정말 더워서 취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가 되듯, 우리의 글도...

**김연행**

아직은 기자단 활동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파도를 이루듯, 기사를 통해 작은 통일준비 활동을 꾸준히 소개한다면 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문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다영**

저도 김연행 자문위원님처럼 '나비효과' 같은 걸 상상했어요. 기사를 통해서 통일 후 젊은 세대가 얻게 될 편의, 혜택을 알리면 청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쓰는 기사 하나는 비록 작고 미미하지만, 언젠가 그 날갯짓이 거대한 힘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 탈북민 초청간담회(서순주 기자 취재)

**정영옥**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전국이 붉은 물결로 뒤덮였듯이 우리 기자단 활동이 강한 통일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움직임이 모이면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 항일문화역사탐방(김민재 기자 취재)

**서순주**

기자단들의 기사가 홈페이지나 SNS에 게재되면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우리의 기사 내용이 진정으로 가슴에 와 닿을지에 대해 가끔 고민하곤 해요. 우리 자문위원들은 통일이 올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지만 '그건 너희들 생각'이란 말을 듣게 되거든요. 자문위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민재**

저는 대학생 시각에서 통일 활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행사 자체보다는 저희 세대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까요. 전문 기자들의 기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대학생 평화 페스티벌(김연경 기자 취재)



▲ 여성통일리더아카데미(김연행 기자 취재)



▲ 오사키에서 열린 '2015 여성컨퍼런스'(장영옥 기자 취재)

통일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해외 여성자문위원 ▶



## 보다 많은 여성, 청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려주면?

**김연행**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내 자녀가 전쟁의 위협이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질 수 있으려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걸 쉽게 공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통일을 자녀의 교육, 진로 등과 연관지어 이야기하면 여성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릴 겁니다.

**서순주**

맞아요. 여성들은 엄마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떤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할 텐데, 통일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점, 그 밝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도 바로 우리 아이들이란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영**

2030세대들에게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리고,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도 '내가 바로 서기도 바쁘니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통일을 했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통일관련 활동이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통일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민재**

저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단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서순주** ▶ 오늘 대학생 기자단들을 보니까 상금발랄하고 창의성이 돋보여요. 기성세대들은 통일을 책임감이나 숙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은 탈북청년 혹은 북한의 청년들과 문화를 매개로 해서 공감대를 넓혔으면 해요. 예를 들어 음악은 세계

공통어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북한 사람도 좋아해요. 문화적 공감을 통해 통일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 '기자단의 2016년 다이어리' 미리 들여다보기!

**연경** ▶ 정영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엔 북한 청년들과 교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남한 청년들도 더욱 통일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기자단의 역량도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당장 어렵다면 탈북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도 좋을 듯해요.

**다영** ▶ 사실 통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경우 가장 먼저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자문위원, 그리고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려고 해요.

**민재** ▶ 1월에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요. 일단 해외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와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통일관련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서순주** ▶ 기사를 통해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거나, 세금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통일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란 걸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김연행** ▶ 글썬요. 2015년에는 많은 행사에 참가하고 기사도 자주 썼지만 2016년엔 활동폭을 좀 줄이려고 해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아들에게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통일에 대한 소신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기필코 꼭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니까요.

**정영욱** ▶ 요즘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붙잡고 통일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특히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아이들과 대화할 땐 통일을 결혼에 비유해 설득하죠. 가족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남이던 사람이 우리 식구가 되는 거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감싸 안으려고 하듯 통일도 마찬가지라고요. 통일이 되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일은 언제든지 갑자기 올 수 있는 거니까 혼란을 없애기 위해 통일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2016년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글. 기자회견>



## 탈북민 어깨동무멘토링 2년, 어느새 동네 이웃!

광주 서구협의회  
한영석 멘토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주평통의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에서 시작된 어깨동무멘토링. 낯선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민 가정의 부모, 아이들과 처음 만나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멘토 자문위원들이 청소년 멘토링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 형제자매들까지도 함께 보듬어 안은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들이 동네 이웃으로 동화되었고 남북한 구분도 사라졌다. 광주 서구협의회 자문위원들 역시 4명의 멘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때로는 다 같이, 또 때로는 개별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며 탈북민들과 '작은 통일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 처음 가보는 해수욕장, 모래가 발바닥을 간질간질~

한영석 멘토 자문위원이 선영이(가명, 초등학교 6학년)를 처음 만난 것은 '하나-다섯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3년, 광주 서구협회의 연간행사 중 하나로 탈북민들과 순천만 여행을 갔을 때였다. 선영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 선영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어깨동무멘토링이 시작되자 기꺼이 멘토가 돼 주었다. 멘토-멘티 결연식이 있고 얼마 안 있어 한영석 멘토는 선영이네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다. 묻는 말에 스스로없이 대답을 잘하고 명랑한 선영이의 태도에 '북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고, 멘토 자문위원 가족과 선영이 가족은 이미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지난해 여름 신안 증도의 바닷가. 시원한 파도소리와 흰 모래사장 위에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에 서구협의회 멘토 자문위원들이 경비를 마련해서 멘티가족들과 함께 1박2일 여름방학캠프로 바닷가에 간 것. 선영이를 비롯한 은경이, 은희(가명, 중학교 3학년, 쌍둥이)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해수욕장에 처음 와봤다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선영아 신발 한 번 벗고 걸어봐.”

멘토 한영석 위원의 말에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던 선영이가 말했다.

“모래 알갱이 때문에 발바닥이 너무 간지러워요.”

이날 가족을 동반한 멘토 자문위원들은 미리 준비해간 음식을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나눴고, 자문위원 자녀들은 멘티 아이들과 또래친구가 되었다.



“선영이 넌 크게 될 아이로구나!”

서구협의회 멘토 자문위원들은 지난해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부방을 마련했다. 장인수 고문이 재능기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5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진행한 것. 초등학교 4~6학년에 중학생까지 섞여 있는 교실에서 장인수 고문은 아이들 각각의 교과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말뚱말뚱한 눈으로 선생님 얼굴만 바라보던 아이들이 2주가량 지나자 ‘쌤’이라고 부르며 열심히 임해주었다. 장인수 고문은 ‘탈북아이들은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조금이라도 늦을라치면 “쌤 오늘은 못오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학생들과 차츰 대화의 장을 넓혀갔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써보기도 했고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험기간에는 출제범위에 맞춰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다. 아는 문제가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모르면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고 수업방법을 조금 달리해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시험지나 성적표 공개를 꺼리던 학생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랑을 하기도 했다.

“선생님 저 이제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너무 기분이 좋구나. 다음에는 더 올려보자.”

서구협의회 김진경 행정실장(현재 광주지역회의 실장)은 아이들을 위해 가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응원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아이는 선영이었다. 장 고문은 선영이를 '열의와 센스가 넘치는 아이'라고 했다. 공부방 대표인 선영이는 항상 먼저 와서 수업준비를 다 해놓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으며, 교재에 항상 공부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덕분에 선영이는 영어점수를 크게 올려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선영이에게 장인수 고문은 '너는 크게 될 아이로구나'라고 칭찬도 해줬다.



## 올해 다시 시작한 멘토링, 멘티 더 늘어

광주 서구협의회는 이런 학습멘토링 또래멘토링도 접목했다. 멘티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멘토 자문위원들만 참여하는 것보다 또래친구들이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결연식 때부터 함께 해서인지 지금도 멘티 아이들은 또래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단체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자문위원들 역시 자녀를 통해 멘티의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멘티 아이들은 처음에 예, 아니오 등 단답형으로 대답하곤 했지만 이제 서로 이야기하겠다고 소란을 피울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협의회는 올해 광주지역회의를 통해 중학생 멘티 한 명을 더 소개받고, 11월에 지역회의 주관으로 멘토-멘티 결연식을 맺은 이후 벌써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 그중에서도 자문위원과 멘티 엄마들이 함께 북한음식과 한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전통음식문화교류'행사는 한식 전문가이자 새로운 멘토가 된 조지현 자문위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멘티 엄마는 '속도전떡' 요리법을 알려줬고 조 자문위원은 한식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열

마 전 서구협의회 청년분과가 주관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트래킹' 행사에는 멘토 자문위원, 멘티가족, 또래친구들을 포함해 총 40~50명가량이 참가했다. 또한 곧 겨울방학이 되면 광주지역회의 청년분과와 함께 눈썰매장으로 캠프를 갈 계획이다.

광주 서구협의회는 이런 학습멘토링 또래멘토링도 접목했다. 멘티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멘토 자문위원들만 참여하는 것보다 또래친구들이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결연식 때부터 함께 해서인지 지금도 멘티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단체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자문위원들 역시 자녀를 통해 멘티의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멘티 아이들은 처음에 예, 아니오 등 단답형으로 대답하곤 했지만 이제 서로 이야기하겠다고 소란을 피울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큰아빠 감사해요 & 막내딸 생겨서 좋겠네

올해는 장인수 고문의 건강 악화로 인해 공부방이 중단된 상태지만, 한영석 멘토 자문위원의 멘티 선영이는 일취월장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쌍둥이 자매인 은경이, 은희는 사춘기여서 그런지 마음을 열지 않고 말수도 없어 내심 걱정했었는데, 올해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갔는지 성격이 매우 밝아졌다고 했다. 그 시기 청소년의 예민한 기분을 알기에 자문위원들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반겨줘서 편안한 관계가 됐다. 게다가 둘 다 공부엔 취미가 없다고들 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고부터 성적이 중간정도까지 뛰어올라 멘티 엄마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 쌍둥이 자매의 엄마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으로 일을 하러 다니느라 항상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 자그마한 식당을 오픈하면서 자문위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한영석 멘토 자문위원은 이제 멘토-멘티보다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녀사이 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함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가을부터는 행사 때마다 선영이 손을 잡고 돌아다녔는데 자문위원들이 '자네는 딸 하나 생겨서 좋겠네'라며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대해 본다.

아무진 데다 공부도 잘하고 발표력과 리더십이 있어 작년에는 전교부회장도 했다는 선영이는 엄마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영석 멘토 자문위원의 기쁨이기도 하다.

한 자문위원은 탈북민 멘토링이 어렵다는 이야길 들었지만 다행히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줘서 수월하게 지나온 것 같으며, 정해진 멘토링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들 가족과 계속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석 멘토 자문위원을 비롯한 서구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탈북민들의 '행복한 동행'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



## 큰아빠 멘토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큰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서 관심도 보여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했던 여름방학 캠프가 가장 좋았어요.  
엄마가 직장생활을 하셔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가족들과 리조트에 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 오빠들이랑 여러 가지 게임도  
한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영이의 멘토링 소감문 중〉



〈글. 기자희〉



## ‘통일 지식의 별’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다!

### ‘2015 중학생 통일퀴즈왕 전국 결선대회’ 열려

12월 말 열린 ‘2015 중학생 통일퀴즈왕 전국 결선대회’ 녹화 현장. 종료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좀처럼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아무리 문제를 출제해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네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주세요.”

신영일 아나운서의 말에 작가들은 “난이도 상 문제였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고르느라 손길이 분주해진다. 최종 3인을 남긴 채 연장전에 돌입, 축구 경기로 치면 연장 전후반 15분씩, 총 30분을 다 쓰고도 남은 시간이 흐를 만큼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던 ‘2015년 통일퀴즈왕 전국 결선대회’ 현장을 소개한다.



### 중학생들의 통일·역사 지식대결 ‘남심북심 통일 퀴즈쇼!’

민주평통은 ‘2015 중학생 통일퀴즈왕 전국 결선대회’를 지난 12월 27일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상암동 소재)에서 개최했다. 중학생 역사·통일퀴즈왕 시도 본선대회 입상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채널A의 겨울방학 특집 방송 ‘남심북심 통일 퀴즈쇼!’ 녹화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신영일, 김태욱, 최서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민주평통은 이번 결선을 위해 지난해 6개월동안 전국 321개 중학교, 12만350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렀다.

2015년 대회는 전년도와 달리, 전원이 퀴즈대회와 패자부활전에 참가하는 서바이벌 방식을 도입해 ‘통일과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퀴즈왕’을 선발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3라운드까지는 도전골든벨처럼 화이트보드에 OX 또는 주관식답을 적도록 했고, 최종 4인이 선발된 이후에는 장학퀴즈와 같이 맞힌 문제의 총합으로 승자를 결정했다. 또한 북한 공연단과 탈북민 방송인들이 북한 관련 문제를 내기도 했고, 많은 아 이들이 중학생다운(?) 장기를 뽐내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 전국 최고의 '중학생 통일 퀴즈왕'은 바로 나!

1라운드에서는 근현대사와 북한, 세계사 관련 문제들이 출제됐다. 독립군 항일전투나 국민들의 독립운동, 통일방안 및 남북관계 등 중학생에게 다소 어려운 문제였지만 절반 넘는 아이들이 가볍게 1라운드를 통과했다. 특히 북한말 공부를 많이 한듯, 북한말퀴즈의 답을 빨리 적고 흐뭇한 표정으로 정답발표를 기다리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2라운드는 탈북민 가수 백미경 씨의 노래와 달래음악단 임유경 씨의 아코디언 연주로 막을 열었다. 이들은 '저기 저산이 백두산이라지, 8천만 우리 겨레 하나가 된다'는 내용의 '우리아리랑' 노래공연을 선보인 뒤 북한 음식 문제를 출제했다. 특히 탈북민 방송인들이 영상을 통해 소개한 북한 속담 문제는 남한의 속담과 매우 비슷해, 한 뿌리에서 갈라져 온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공유하는 전통놀이를 주제로 속담게임과 제기차기, 닭싸움 등이 펼쳐졌으며, 중학생을 상대로 '몸을 사리지 않고' 대결에 응해준 MC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전원이 부활한 뒤부터는 퀴즈왕을 향한 치열한 승부가 전개됐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도중 난이도를 올리기도 했다. 최종 7명이 남은 상황에서는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이 문제를 출제했다. 박 사무처장은 "당당한 모습으로 통일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통일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걸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통일시대는 바로 여러분의 시대이기에 잘 준비해서 멋진 통일을 같이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마침내 최종라운드에 남은 퀴즈왕 후보들.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만큼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은 학생을 포함, 4명의 학생들은 만만치 않은 역사 실력을 자랑했다. 10문제 중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학생이 통일 퀴즈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전원이 정답판을 드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다. MC가 "언젠가는 1명만 맞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난이도를 최고로 끌어 올린 뒤에야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 비록 예정된 시간보다 약

간 지체되긴 했지만 통일·역사 분야 '지식의 별'들이 모인 대회답게 멋진 승부를 펼쳤다. 최종 승자에게는 의장 상인 대통령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준우승에게 50만 원, 3등과 4등 학생에게 각각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 학생들의 다양한 장기자랑, 재밌는 볼거리로 구성돼

통일퀴즈왕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이돌그룹의 공연과 학생들의 장기자랑이다. 가수 JJCC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 중간에 학생들은 태권도, 가야금, 춤과 노래, 스피치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였다.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한 서연이, AOA의 춤을 감쪽하게 선보이던 주혜, 통통한 몸매(?)로 EXID의 춤을 재미있게 소화해내며 좋아하는 멤버에게 러블리한 영상편지까지 날린 현우 등 통일 지식뿐만 아니라 흥만한 끼를 한껏 자랑했다.

특히 태권소년 주회는 김태욱 아나운서의 키만큼 올라가는 발차기 실력을 선보인 뒤 곧바로 다소곳하게(?) 앉아 '통일대박'이라는 캘리그래피를 써보였다. 제주에서 온 승태는 "날씨로 인해 감귤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 통일에 적절한 시점이 있듯이 귤을 사랑해주실 적절한 시점이 이 때인 것 같다"며 신영일 아나운서와 북한사투리로 재담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현욱이는 20초 만에 큐브를 맞추는 놀라운 신기를 보여줬다.



이날 학생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이어지는 동안 지친 기색도 별로 없이 끝까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아쉽게 탈락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생 통일골든벨에 출전하겠다'며 역사·통일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란 각오도 밝혔다.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해박한 지식,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미래 통일인재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기자회견 /사진. 고영민>



일 년의 시작 설날. 설날은 한 해를 대표하는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이다.  
 옛 사람들은 해와 달을 보면서 한 해를 24절기로 나누고, 중요한 때를 가려 특별하게 지냈다.  
 '명절'이란 글자 그대로 절기 중에서도 이름 있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명절 중에서도 으뜸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다.



### 설날 풍속은 남북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조상의 은덕에 감사드리고 어른들을 찾아뵈어 한 해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를 드린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음식을 장만해 이웃과 경(情)을 나눴으며, 가족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행복을 기원했다. 설날의 전통적인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새해가 되면 여전히 그동안 찾아뵈지 못했던 친척이나 친지를 찾아 안부를 묻고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눈다. 반만년 동안 내려온 민족의 전통은 현대인의 삶 속에도 그대로 묻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설날은 어떤 모습일까. 민족 전통이라서 그런 것일까. 남북이 분단된채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어도 면면히 내려오는 설날 풍속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형식이나 절차 등의 보이는 부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상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즐기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정서는 여전히 다.



### 축하엽서나 연하장 주고받는 북한의 새해

북한에서 설날은 전통적으로 양력설을 의미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조되면서 음력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력설의 의미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양력설은 양력설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북한에서 설날은 사회주의 7대 명절과 함께 8대 명절로 중요시 여긴다. 새해가 되면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축하염서나 연하장도 보낸다.



양력설에는 쌀과 술, 고기 등의 특별배급이 있고, 가정에서도 만두나 떡 같은 설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까이 계실 경우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한다.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멀리 흩어진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 직장에서도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휴가를 주거나 교통편을 내주는 것이 아니어서 먼 곳에 있는 친척이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이웃, 직장동료들끼리는 한 해 동안 들보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기한다.

북한 역시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차례상을 올린다. 차례상 차림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적과 탕을 기본으로 쓴다. 남한에서는 대부분 탕에 쇠고기를 넣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쇠고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이용한다. 산간 지역이 많은 북한 특성상 재료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 배추, 무로 적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기도 한다. 또한 황해도 지방에서는 차례상에 찰떡을 올리기도 한다. 올리는 것은 달라도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세배를 하고, 덕담도 나눈다. 남한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북한에서 새해를 맞이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등이다. 이 외에도 '새해를 축하한다. 부디 행복하거라', '새해에 등무의 사업과 생활에서 기쁜 일이 많길 바랍니다', '새해를 축하하오. 한번 본때 있게 일해 봅시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등의 인사가 오간다.



설날 아침의 풍경과 예절 역시 남북이 대동소이하다.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윗사람부터 순서대로 경중히 절을 하며, 부부와 형제-자매 사이에는 맞절을 한다.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한 다음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아랫사람이 윗어른에게 절을 한 뒤 인사말을 하면, 세배를 받은 윗어른은 답례인사를 한다. 어린이들은 인민학습당, 개선문 등의 광장에서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등 각종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 설날엔 TV 특별방송 편성, 윗놀이 경기 중계도

북한 언론은 설날 아침에 '백두산 3대 장군'이라 불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바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세배풍습'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방송에서는 명절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최근 화제가 된 모란봉악단의 설 명절 축하공연이나 가수들의 노래공연, 아마추어 경연대회 수상자들의 재담, 평양교예단의 교예공연 등을 보여주거나 코믹물을 방송하기도 한다. 특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래, 공연, 코미디 프로그램 등으로 우리와 비슷하며, 지역별 대표가 나와서 벌이는 윷놀이 경기를 중계하기도 한다.

남북 분단의 시간이 70년을 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 해를 잘 보내고,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새해를 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잘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남북을 넘어 인류의 평안이 이뤄지는 2016년을 기원해 본다.

<사진제공 : SBS. 연합뉴스>





올해 29살, 대학교 3학년인 경수(가명, 2010년 입국, 청진)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족이 더욱 그리워진다. 김장으로 분주한 손길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거리, 온 가족이 새해맞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형과 엄마가 더욱 보고 싶단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들, 언젠가 만날 수 있던 기대라도 가진 탈북민들은 그래도 나은 거라고, 비록 세상에 혼자 남겨졌지만 가족들과 행복했던 기억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한 경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배추 꼬개기에 양념 발라주시던 엄마 생각나요

두툽한 패딩점퍼에 겹겹이 옷을 껴입은 경수는 “겨우 이런 날씨에도 추위를 타는 거 보니 남한에 적응이 다 된 것 같다”며 웃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땐 패딩 안에 러닝만 입고 다녔어요. 북한은 진짜 춥잖아요. 입김을 불면 곧바로 서리가 확 끼거든요. 여기 겨울은 겨울 같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맘때 북한에선 뭘 하나고 물었더니 아마 ‘김치(김장)’한다고 난리일 것 같단다. 큰 밥상을 내 와서 절인 배추를 올려놓고 양념을 발라 김장을 한 뒤에 집집마다 어떤 집 양념이 제일 맛있는지 비교를 하기도 했다고.

“우리 엄마는 김치를 소홀히 안 했어요. 김장할 때마다 배추 꼬개기(고갱이의 북한말, 배추의 연한 속)에 양념 묻혀서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왜 형만 주고 나는 안주냐’ 투정을 부리면 저에게 더 샛노란 꼬개기에 양념을 발라주시곤 했어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겨울철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수도관이 얼면 밥 해먹을 샘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24시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어서 좋단다. 엄마와 가끔 중



국을 넘나들었다는 경수에게 왜 진작 남한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남한은 '적대국'이라서 가면 당연히 총살을 당할 거란 생각도 있었던 데다 남한은 '헐벗고 굶주리는 곳'이란 생각에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왔다고 한다. 경수가 한국에 대해 안 것은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부터였다.

"신기했어요. 거짓말을 했구나. 북한이 최고라고 교육받았거든요. 그런데 진리로 알고 있었던 게 허물어지니까 회의감이 들었어요."

## 한국 광고를 통해 본 피자, 정말 맛있을 줄 알았죠

중국에 와서 한국 매체들을 접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광고였다. 경수는 피자 광고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한국 광고가 짱이잖아요. 광고 보면 진짜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쪽쪽 늘어나는 피자치즈 볼 때마다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한국가면 제가 저거 꼭 사 먹는다고 생각했죠." 경수는 남한 사회에 나오자마자 피자를 샀다. 그리고 덩석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게 웬일? 너무 맛이 없는 게 아닌가.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경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제품을 접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치즈를 잘 먹지 못한다.



"온갖 상상 속에 꿀 맛 같고 달콤할 것 같았는데 완전히 상상을 깨버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식품 광고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TV에서 대홍단 감자광고를 했다고 한다. '감자 감자 감자 대홍단 감자~'로 시작하는 CM송을 직접 불러주며, 북한에서는 식량난 때문에 대홍단에서 나는 감자를 많이 사 먹을 수 있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

"감자를 식량으로 많이 보태서 쓰라는 거죠. 쌀 조금 넣고 감자 많이 넣어서 감자밥도 자주 해먹었어요. 감자채, 감자떡, 감자오그랑족 이런 것도요."

##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어떻게 불이 나올까?

경수는 연말에 남한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듣기 좋고, 트리가 야간에 반짝거리는 것도 아름답다고 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나무를 직접 갖다 트리로 만든 걸 봤는데 나무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나 정말 신기했어요. 밤에 가서 막 만져보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신년이 되니까 좀 슬펐다고 했다. 북한에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생각이 낯기 때문이다.

"명절 이틀 전에는 엄마가 새 옷을 마련해놓고 떡가루도 내와서 떡을 해주시잖아요. 남한에 오고 2년간은 가족이 그리워서 설을 맞이하는 게 싫었어요."

엄마는 경수와 중국을 왕래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중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래도 형은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형도 죽었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경수는 지금 남한에서 명절 때면 고향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두도 해먹고 해돋이도 보곤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도 일출 보러 바다에 가는지 물었더니 '북한에서는 일출 볼 일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집 근처가 청진 바닷가였기 때문. 경수는 새벽에 고기잡이도 하고 오징어 철마다 해변으로 몰려드는 멸치를 가득 건져 올리곤 했다.

"멸치들이 낙지(오징어의 북한말)들을 피해 바다 기슭으로 나오는데 그물로 건지면 이만한 독에 두 개씩 잡아 와요. 절여서 멸치젓을 만들어 먹곤 했어요."

청진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했던 기억도 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깊은 물에 들어가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노는 걸 단속하지 않아요. 깊은 바다에서 논다는 건 그만큼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한에선 사고 나는 것에 대해 엄청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은 막 떼(뛰어)들어가서 놀다가 죽으면 자기 잘못으로 생각해요."

## 아카시아 나무 꺾어서 낚시했어요!

예전에 남한에선 대나무 같은 걸 베어다 낚싯대로 쓰곤 했는데, 북한에선 어떤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지 궁금했다. 경수는 가게에서 파는 낚싯대는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었고 대신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미끼는 지렁이를 잡아다 썼고 바늘은 쇠줄을 자른 뒤 홈을 파서 썼다. 다만 그렇게 만든 코바늘은 든든하지 못하니까 많이 만들어서 한두 마리 낚고는 다른 걸로 갈아 끼우곤 했단다.

"바다에서는 청어 임연수, 망둥이가 잡히고 두만강에서도 임연수가 잡혀요. 점이 있는 모세라는 민물고기도 있고 뱀장어도 나오구요."

조개로는 섬과 홍합, 꽃조개 같은 것을 잡곤 했는데, 특히 두만강가나 모래사장을 발로 뒤지면 발바닥에 꽃조개들이 꽤 많이 걸려 나왔다고 했다.



친구들과 낚시에 빠져서 학교에 안 가고 '땡땡이'를 쳤다가 엄마에게 뒤통 혼이 난 적도 있다. 아침에는 엄마에게 학교 간다고 말하고 3일간 학교를 안 갔더니 학급반장이 집에 찾아온 것. "밖에서 반장이 붙었어요. '경수가 학교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내일은 꼭 나오라고 합니다'라고요. 그날 구서바기(모서리)에서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요. 딱 막혀서 어디 뭘 데 없는 곳 있잖아요."

경수는 언젠가 엄마 돈을 한 번 훔쳤다가 절구공이로 맞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우리 엄마 되게 무서워요'라고 말하지만, 경수 기억 속에 엄마는 김치(김장)를 잘하는 엄마,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강인한 여성으로 남아 있었다. '이젠 그렇게까지 많이 그리지는 않다'면서도 목이 메는 경수를 차에 태워서 집 근처에 내려다 주고 돌아서는 길, 유독 바람이 차갑고 사위가 어둡게 느껴졌다. 경수에게 앞으로 더 많은 고향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더 많은 남한 이웃사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기자회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추진방향' 정책건의 채택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운영·상임위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란 정책건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 '통일·대북정책 기초 유지, 남북교류협력 중점 추진' 정책건의

이날 채택된 정책건의의 기본방향은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기초를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또,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남북대화 경례화 추진 등을 통한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 실현 △북핵 '6자 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통일준비 제도화 및 국민 참여형 '풀뿌리 통일준비운동' 확산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병행 추진 등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북한 훈공기가 예상되는 2~4월중 영·유아 영양지원을 추진하고, 6자 회담 재개와 연계해서는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풀뿌리 통일준비운동' 확산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용어를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민'으로 변경할 것과 통일 및 공공외교 추진과정에서 가치 '통일 공공외교 기획단' 창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상임위원회 합동회의

▲ 김용호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이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건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이번 정책건의 보고서를 위해 사전에 10개 분과위원회 회의(11.6~13)를 거쳐 상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며, 국민과 통일문제 전문가,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여론조사결과도 반영해서 정책건의 보고서 내용의 객관성을 높였다.

## “8천만 국민이 행복한 통일을 열어가는 것은 모두의 사명”

이날 행사에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민생과 문화, 환경의 통로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통일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여.산악

▲ 손경식 수석부의장 직무대행 겸 서울부의장이 개최사를 하고 있다.

손경식 수석부의장 직무대행 겸 서울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 민주평통은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이라는 본래 사명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8천만 통일의 노래’ 제작, 탈북민 정착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지역사회 화합과 봉사를 통한 국민통합에 앞장 서왔다”며, “우리 2만여 자문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생활 속에서 풀뿌리 통일운동을 실천한다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한층 더 가까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한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016년도 통일준비 추진방향으로 △자문건의 내실화(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국민 통일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 자문건의 역량 강화) △통일준비 본격화(통일준비의 구체화, 지방화, 국제화) △통일미래 인재 육성(청소년 통일외지 고취, 청년 통일역량 강화)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像) 구현 등을 제시하며, “앞으로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더욱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영.상임위원회

▲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어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정부측 보고를 진행했다. 홍 장관은 현 정부의 통일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던 시점에 타결된 ‘8.25남북합의’를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준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다른 조직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현실, 우리의 통일정책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해 통일공감대를 형성할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있다.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민주평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과 각 분과위원장들의 영상 보고가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호 중국부의장, 김선옥 여성·탈북민지원 분과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통일준비과제를 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 6명이 영상을 통해 '통일준비 이렇게 합시다'라는 주제로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영상에서는 최경수 위원(북한지하자원지원 분야), 유혜란 위원(탈북민 심리치료 분야), 윤영진 위원(의료지원 분야), 이창호 중국부의장(해외 통일준비 분야), 이완영 위원(남북경협 분야), 전계원 위원(청년 통일준비 분야) 등이 출연해 그간의 활동을 얘기하며 각자의 통일준비 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제17기 분과위원회 활동성과와 방향'과 관련, 9개 분과위원회를 대표해 각 위원장들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건의 활동, 특별활동,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 운영·상임위원들이 회의장 밖에 전시된 북한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8천만 통일의 노래' 경연이 펼쳐졌다. 사진은 청년분과위원회의 합창 장면.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통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제작한 '8천만 통일의 노래' 분과위원회별 경연대회가 펼쳐져 화합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 회의장 밖에서는 민주평통이 주최한 '2015 북녘친구에게 보내는 초등학생 편지쓰기 대회' 우수작품과 북한에서 애용되고 있는 태블릿 PC, 휴대폰 등 북한물품이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의 탈북민 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카드 판매행사도 진행됐다.

<글/사진·고영민>

## “통일의지를 다지고 활동방향을 설정한 상임위원 회의”

“1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상임위원들이 통일의지를 다지고 활동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통일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고 통일 및 대북정책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현재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협력과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으로서 남북한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마련, 남북한 문화재·문화유적지 보존과 상호 관광 증진, 남북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교류협력, 남북한 문화·예술·체육인 상호 왕래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수석 상임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혜경 상임위원  
(사단법인 '새살' 대표)

“오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설명 덕분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어요. 또한 마지막 순서로 ‘8천만 통일의 노래’ 합창 경연이 있었는데, 비록 짧은 연습이었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메시저로 합창 기획과 관련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고, 오늘 만나 리허설을 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느낌입니다. 현재 ‘종교복지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남북한 종교 교류 활성화, 통일과정에서의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통일, 경제가 말한다’ 제1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열려





민주평통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11월 26~27일 '제1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 개최했다. '통일, 경제가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23명이 참석해 북한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통일 준비, 통일 이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통합의 경제학-성과와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했고, 김영훈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와 이상준 박사(국토연구원), 이석기 박사(산업연구원), 조남훈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각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경제 통합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통일 이후 남북경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평통이 여러 계기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 =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김근식(경남대학교),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희(산업은행), 문성민(한국은행), 박형중(통일연구원),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 유호열(고려대), 이상준(국토연구원),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이석기(산업연구원), 이재호(중소기업연구원), 이준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은이(경상대학교),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조병구(한국개발연구원), 조영기(고려대), 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초등학생 북녘친구에게 편지쓰기대회' 시상식 열어



민주평통은 12월 10일 사무처에서 '초등학생 북녘친구에게 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을 열고 대구송현초등학교 이수현 학생에게 대상인 의장(대통령)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수현 학생은 편지에서 '마치 김밥을 만들 듯 통일이라는 밥을 지어서 한반도 전체에 고슬고슬 뿌리고 싶다'며 '한반도 위에 정성스럽게 뿌리면 어둡게 나누어진 한반도가 새하얗게 변할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금상(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은 서울연남초 최지윤, 서울우암초 정다울 학생이 수상했으며 은상(민주평통 사무처장상) 20명과, 동상 40명, 장려상 60명, 특별상(5개 학교)은 소속 학교장을 통해 전달됐다. '북녘 또래친구에게 쓰는 통일 희망 편지'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국 425개 초등학교에서 6,224 명의 학생이 응모했다.

## 2015 여성 컨퍼런스,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민주평통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2015 여성컨퍼런스'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했다.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여성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 여성위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일본근거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대양주, 중동지역 18개 협의회 여성위원 125명과 국내 여성위원 25명 등 총 150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해 '여성이 준비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12월 3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분임토의가 진행됐으며, 4일에는 개회식과 김태현 여성부의장의 기조연설,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및 구광옥 재일동포 변호사,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의 특강, 통일토크, 분임토의 등이 이어졌으며, 5일에는 분임토의 결과발표, 총평 등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대양주, 러시아, 중동, 국내 여성위원들이 함께하여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고 통일활동의 의지를 강화하고, 특히 그동안 교류가 적었던 일본 여성위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인천지역회의 '2015 통일LIVE' 열어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는 12월 1일 귀빈컨벤션웨딩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의 꿈! 통일의 소리! 2015 통일 LIVE' 행사를 진행했다. 국민들에게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천지역 여성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통일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10개 구·군 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이 주관해 참가팀을 구성했다.

참가팀은 가요, 동요, 가곡, 팝송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유곡 1곡을 지정한 뒤 희망, 미래, 남북이야기 등 통일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노랫말로 개사해 노래와 율동으로 실력을 겨뤘다.

## '2015년도 유공 자문위원 국민 훈·포장 수여식' 개최



- ▲ 국민 훈·포장 수훈자 기념촬영
- ◀ 의장 단체 표창을 받은 27개 협의회 대표들



민주평통은 지난 12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5년도 유공 자문위원 국민훈·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훈·포장 서훈자, 단체표창 협의회 대표자, 초청인사(시·도 부의장, 수도권 간부위원) 및 하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국민통합, 북한인권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국민훈·포장 서훈자로는 총 45명(모란장 7명, 동백장 9명, 목련장 12명, 석류장 14명, 국민포장 3명)이 선정됐으며 국내외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일복지 결집과 통일준비 활동을 펼쳐 의장 단체표창을 받은 협의회로는 30개가 선정됐다.

## 중국지역회의 상해 매헌기념관에 '통일염원 임정대장정' 완주 기념식수





중국지역회의(이창호 부의장)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세계한인청소년 1만5천리 통일염원 임정대장정' 원주를 기념해 12월 5일 윤봉길 의사 상하이이거 유적지인 상해 매한기념관에서 기념식수를 심었다. 임정대장정은 중국지역회의가 주최한 행사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33명이 지난 10월 25일부터 8박 9일간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던 대련 뤼순 감옥 유적보존지역을 출발, 중국-북한 접경지역, 중경임시정부 청사를 비롯해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11월 2일 상해 매한기념관을 방문하고 참배하면서 막을 내린 바 있다. 중국지역회의는 이 임정대장정 행사를 기억하고, 중국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상해총영사관과 상해시정부의 협조를 기념식수를 심었다.

## '경북지역회의 자문위원 연수' 끝으로 2015년 연수 모두 종료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12월 4~5일 양일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경북지역 23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경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울진군협의회 회장 박경조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통일관련 전문 강좌를 대폭 확대했으며, 분임토의, 통일 4행시 및 통일한줄 생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의 정책건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준비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자문위원 연수는 지난 3월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총 40회에 걸쳐 연인원 9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경북지역을 끝으로 2015년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충남 홍성군협의회



▲ 충남지역회의



▲ 전남 장흥군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11월 12일 광천지역민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병욱)는 13일 선문대학교에서 포럼회원, 대학생 등과 함께 '2015년 제2차 충남평화통일포럼'을 열었다. 전남 장흥군협의회(회장 김현복)는 18일 대항기관 관계자와 관련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채)는 19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 특강을 열었다.



▲ 경남 통영시협의회





▲ 경기 안산시협의회



▲ 대전 동구협의회



▲ 경기 안성시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9일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대학 제10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과정 9강'을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했으며,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지역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경기 안성시협의회(회장 남기철)는 '2015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각각 열었다.



▲ 대전 서구협의회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전북지역회의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24일 서구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2015 통일홍보강연회'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는 서귀포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안)는 전북대학교에서 '2015년 3차 전북평화통일포럼'을 각각 열었다.



▼ 인천지역회의

▼ 경기 남양주시협의회



▲ 강원 동해시협의회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25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강연회'를 실시했으며,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희숙)는 이날 '인천 청년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이튿날 경기 남양주시협의회(회장 김미연)는 '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으며, 충남 논산시협의회(회장 송덕빈)는 건양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충남 논산시협의회





▲ 전북 익산시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는 27일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 대강연회를 열었으며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27~28일 충주 및 수안보 일원에서 '통일준비 자문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 부산 금정구협의회



▲ 대구 동구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부산 금정구협의회(회장 김재두)는 12월 1일 '2015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으며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최숙)는 이날 '동구 관내 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시민과 함께 '통일대박지도자양성과정 9강'을 개최했으며, 같은 날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기관단체장, 의경 및 군인, 지역주민 등을 초청해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경북 예천군협의회 ▶



▼ 경남 양산시협의회



▲ 강원 화천군협의회



▲ 서울 광진구협의회

2일에는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이태호)가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가 '평양민족예술단 공연과 함께하는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각각 개최했다. 또한 이날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최복수)는 보훈단체 가족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 강원 강릉시협의회



▲ 대구 달서구협의회



▲ 울산 중구협의회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화국)는 (사)강원하나포럼과 함께 3일 통일관련 주요인사,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관계자, 통일동아리, 시민단체회원 등과 함께 '통일염원 평화올림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남현주) 주관으로 4일 '달서구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었다.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이진용)는 7일 탈북민과 함께하는 '2015년 통일 공감 강연회'를 개최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남 창원시협의회 ▶ 경기 부천시협의회



◀ 부산 수영구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11월 13일 대형기관장 및 단체장, 학부모, 교사 등을 초청해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유소년 통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4일 지역사회 청년리더들과 함께 독립기념관과 평택 해군 제2함대 천안함 현장으로 '통일준비 차세대 리더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김종수)는 17일 관내 중학생들과 함께 '2015 통일·역사 현장 견학'을 실시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18일 임진각 일원으로 덕산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 경남 밀양시협의회

▶ 전남 완도군협의회



▲ 경기 여주시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 ▶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16일 밀양초등학교에서 '2015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남 완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19일 완도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행사를 개최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20일 강원도 철원 등지로 여주제일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5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고,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20일 세일고등학교에서 '나만의 통일 화랑 발표회(사진 전시회) 및 통일공감 A to Z 강연회'를 열었다.



▲ 부산지역회의



▲ 전남 강진군협의회



▲ 경북 청송군협의회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24일 부산청년위원장, 부산지역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 및 청년자문위원, 대학생 및 통일동아리 회원 등과 함께 '부산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안영진)는 청림중학교 학생들과 보성일대로 '2015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24~25일 DMZ일원에서 청송중학교 학생들과 '나리사랑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학습'을 열었다.



▲ 대전 중구협의회



▲ 서울 강북구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24일 대전중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고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25일 신일고등학교에서 '2015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파주DMZ일대로 남양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2015년 청소년 통일기행'을 다녀왔다.



▼ 전남 진도군협의회







▲ 충남 천안시협의회



충남 공주시협의회 ▶

26일에는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선문대학교에서 '2015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수능성을 위한 역사기행 및 통일이해' 행사를 열었다.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27일 공주 신월초등학교에서 '2015 초등학교 역사·통일 퀴즈왕'대회를 개최했다.



▲ 경북 안동시협의회



▲ 제주지역회의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권순협)는 27~28일 안동대학생, 시민과 함께 경기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인 평화안보현장과 역사문 화유적지에서 통일안보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했다.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치용)는 28일 '제6회 통일영어스피치 대회'를 28일 열었다.



▲ 전남 나주시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 경남 남해군협의회

전남 나주시협의회(회장 진창언)는 30일 나주공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이날 안양대학교에서 '청년과 통일'을 주제로 토크식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남해지족초등학교에서 '2015 초등학교 통일준비 한마음대회(우리소리 한마당)'를 열었고 전남 곡성군협의회(회장 김판준)는 곡성초등학교에서 '어린이통일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 곡성군협의회



▼ 경남 거창군협의회





▲ 충남 서천군협의회



▲ 전남 영광군협의회



▲ 광주지역회의

12월 1일에는 충남 서천군협의회(회장 홍순석)는 서천고등학교와 서천여자고등학교에서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각각 열으며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대전 국립현충원과 독립기념관에서 고3 예비 대학생들과 '2015년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해룡고등학교에서 '예비사회인과 함께하는 통일대화' 행사를 열었으며 광주지역회의 청년위원회(부의장 최시준, 위원장 양승곤)는 전남대학교에서 '2015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울산 남구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 경기 하남시협의회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2일 문수고등학교에서 '2015 청소년 통일교육 찾아가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속초고등학교에서 '통일안보 강연회'를 열었다.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이날 신장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방문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경남 고성군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충남 태안군협의회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김성진)는 4일 철성고등학교에서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날 충남 태안군협의회(회장 강철민)는 태안여자고등학교에서 '2015 청소년 통일강연회'를 진행했으며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제7회 도전! 통일 끝없는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 충남 아산시협의회

▼ 경기 용인시협의회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전남 구례군협의회

▼ 부산 동래구협의회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7일 문정중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실시했으며,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에서는 부산개성중학교에서 '2015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를 개최했다.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식)는 8일 구례고등학교에서 '2015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으며,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9일 사직중학교에서 '광복 70주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경북 상주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1월 19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대행기관장, 지역주요인사,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밤' 행사를 개최했으며, 전북 남원시협의회(회장 김병석)는 20일 남원시 관내 문화유적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행사를 열었다.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21일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수원화성의 화성행궁 및 한국민속촌을 견학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 전북 남원시협의회



▲ 서울 노원구협의회



▲ 경기 이천시협의회



▲ 경남 사천시협의회



▲ 충북 청주시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21~22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었고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도 22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27~29일까지 3일동안 충북지역회의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 울산지역회의



▲ 서울 관악구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울산지역회의(부위원장 정영자)는 29일 울산공고에서 '2015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관악구협의회(회장 이정범)는 30일 관악구청 카페에서 '광복70주년, 먼저 온 통일과 함께 하는 통일동행 나눔찾집'이라는 슬로건으로 일일차집을 운영했다. 같은 날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북한이탈주민 하객과 대행기관장,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합동결혼식'을 열었다.



▲ 충남 청양군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2월 1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김장 나눔 봉사' 행사를 열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했으며 같은 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 수익금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튿날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지)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초청해 '송년 간담회'를 열었다.



▲ 경남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



▲ 서울 구로구협의회



▼ 전남 영암군협의회



2일에는 경남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회장 김길화, 지회장 조성) 서울 금천구협의회 ▶

운)가 '제33회 국가유공모범미망인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으며,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이계명)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3일에는 전남 영암군협의회(회장 김성대)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4일에는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가 '2015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를, 6일에는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가 '북한이탈주민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를 각각 실시했다.



◀ 경북 구미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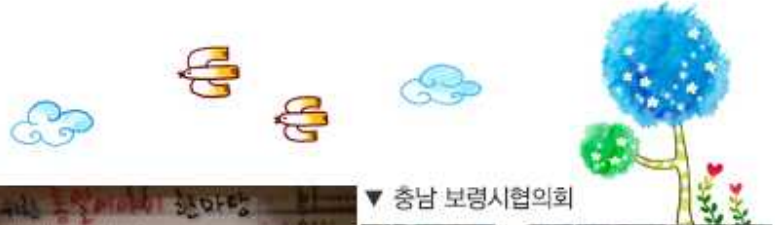
▲ 강원지역회의



▲ 부산 사하구협의회

강원지역회의(부위원장 박용성)는 5일 청년위원회(청년위원장 전제원) 주관으로 멘토 자문위원과 멘티, 멘티가족, 또래친구, 청년위원, 통일동아리 회원 등과 함께 '강원지역 멘토-멘티 화합한마당' 행사를 열었으며,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7일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 통일문화 확산



▲ 광주 광산구협의회



▲ 경북 문경시협의회



▼ 충남 보령시협의회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연)는 11월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광복70주년 평화통일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는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지회와 함께 12일 '2015 통일이야기 문화한마당'을 열었다.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19일 천안함 및 윤봉길의사 기념관으로 '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전남 순천시협의회



▲ 광주 남구협의회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서병연)는 20일 구청에서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통일에 대해 토론하는 '통일공감 영상관람 및 통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대구 중구협의회(회장 이진모)는 천안독립기념관으로 '2015 통일공감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전남 순천시협의회(회장 류제숙)는 2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 500만 돌파기념 행사와 함께 '민주평통 홍보 및 통일기원캠페인'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날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상림공원에서 함양군민들과 함께 '통일기원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 대구 중구협의회



▲ 경남 함양군협의회



◀ 충북 단양군협의회



◀ 세종지역회의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23일 '여성의 한반도 통일 참여와 역량강화'를 주제로 '2015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가졌으며 세종지역회의(부위원장 오영철)는 이날 세종여자고등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문화(음식)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경기지역회의(부위원장 박해진)는 24~25일 캠프그리브스(파주 일대)에서 경기 31개 시·군 자문위원 등과 함께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경기지역회의



▲ 전남 광양시협의회



▼ 강원 횡성군협의회



▲ 서울 중랑구협의회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권)는 25일 광양중학교에서 '광복 70주년 남북 한마음 통일콘서트'를 열었으며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25~26일 북한이탈주민 및 횡성 군민이 함께 거제도포수용소, 외도 일대를 둘러보는 '2015년 군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탐방'을 실시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26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지역 내 탈북민과의 대화·소통하기 위해 통일문화예술제 '통일특목 통일송송' 행사를 열었으며,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백영자)는 육군훈련소와 계룡대에서 '2015년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경기 군포시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규성)는 12월 4일 서부전선DMZ로 초중교사들과 함께 '통일지도자 연수 및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5일 강원도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제 및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봉사활동



▲ 경기 의왕시협의회



▲ 광주 동구협의회



▲ 대구 서구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11월 16일 의왕시청에서 '2015년 김장나눔행사'를 열었으며 광주 동구협의회(회장 김행자)는 17일 관내 독거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일 사랑잔치'를 열어드렸다.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중석)는 19일 '2015 대구 서구 새마을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지원금과 고무장갑을 전달하고 김장나누기 봉사를 함께 했으며,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20일 '통일이야기 나누는 무료급식 배식봉사'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펼쳤다.



▼ 경기 고양시협의회



▼ 충북 증평군협의회 강원 춘천시협의회 ▶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우신구) 통일로나눔봉사단 자원위원들은 26일 시민자원봉사연합회 무료급식소를 찾아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김장응)는 증평군 자원봉사센터 및 (사)징검다리와 함께 27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문균)도 28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연탄 2,000장을 전달했으며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는 30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강원 평창군협의회 ▶





▲ 대구 남구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 전북 전주시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12월 3일 남구청 광장에서 펼쳐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8일 부산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4,000장을 기증했다. 이날에는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가 관내 독거노인들과 저소득계층에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 해외 지역 통일활동



베이징협의회(회장 정재화) 통일정책사업분과위원회는 사단법인 통일아카데미와 11월 27~28일 이들 동안 중국 베이징 왕징 라이광잉 DVC에서 대륙의 통일 바람 '統人風'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한반도 통일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인유학생 및 베이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는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김상순 통일부 해외통일교육위원이 강연자로 나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최근 북한의 변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방안, 통일 준비와 한중관계 등에 대해 강연했다.





중앙아시아협의회(회장 이재완)는 지난 12월 중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통일비전'을 주제로 각각 강연회를 개최했다. 우즈베키스탄 강연회는 14일 데덴만 호텔에서 자문위원, 동포대표, 유학생 등 청소년, 전쟁유가족협회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키르기스스탄 강연회는 16일 골드드래곤호텔에서 자문위원, 한인대표, 고려인, 유학생 및 청소년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의를 맡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와 한·러·한·중앙아시아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11월 14일 호놀룰루 시내 알라모아나 공원 매직 아일랜드에서 '함께하자 통일준비', '앞당기자 통일대박'을 주제로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는 걷기대회는 각 한인단체장 및 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올해는 특히 모든 참가자들이 협의회에서 마련한 태극문양 칠판에 통일기원 문구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가운데 장원 한 명을 선발, 기념품도 전달했다.



베트남협의회 하노이지회(회장 유영식, 지회장 김정인)가 주관하는 '2015 제 3회 도전통일 골든벨' 행사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김당에서 11월 2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통일 골든벨 행사는 먼저 OX 퀴즈로 50여 명을 선발한 후, 문답형의 퀴즈로 마지막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우열을 가렸다.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11월 13일 탈북민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통일염원 연날리기 워커톤' 행사를 열었다. 자문위원과 각 단체, 지역동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금 기부행사와 더불어 샌 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타종식도 함께 진행됐다. 타종식에서는 통일을 염원하고 독립운동 33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른세 번 종을 울렸다. 워커톤 시간에는 한국 전통 연과 통일 염원하는 글들을 배너에 새겨 넣었고 우정의 종각공원을 돌며 통일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사용한 연은 '대한민국 우리 것 보존협회'와 '민속연 보존위원회'가 후원한 것으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연을 이용하여 작전을 지시했던 충무연을 형상화한 것이다.

베트남협의회(회장 유명식)는 11월 24일 호치민시 한인회 강당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규탄대회 및 추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의 포격도발을 규탄하고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의 테러 비난 여론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개최됐다. 추도식은 이해경 베트남협의회 부회장이, 결의문 낭독은 김재성 자문위원 신청했으며 연평도 포격도발에 관한 동영상 시청 등으로 제주국방의 중요성을 재다짐했다.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12월 5일 노스브룩 힐튼호텔에서 자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자문위원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는 탈북여성 이소연·최수향·이순실 씨가 감사로 나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실상과 탈북계기, 통일 준비 등에 대해 소개했고 아코디언 연주 등도 선보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민주평통의 초청을 받은 시카고 거주 탈북자들이 참석해 고향에서 온 강연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시카고에 이어 중서부 지역인 위스컨신주 밀워키(7일)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8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10일)에서도 탈북 여성 초청 강연회를 각각 개최했다.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2월 5일 통일 공감대 형성과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 '평통 연합의 밤' 행사를 라이트하우스 프리몬트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전·현직 임원 자문위원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샌프란시스코협의회가 지나온 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유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통일 시대를 여는 한국사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으며, 백효정 소프라노와 샌프란시스코 한국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공연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관객들과 함께 합창해 감동을 지어냈다.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 파라과이지회는 12월 19일 세종관에서 '평화통일염원 배너 그리기 및 벽화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파라과이지회 주최, 남미일간동아 후원으로 파라과이한글학교(12일)와 파라과이한국학교(19일)에서 각각 열린 이번 대회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아픔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임을 인식하게 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한국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됐다. 22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 벽을 학년 별로 한 블럭씩 맡아 한라산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사물놀이 풍악을 울리며 이동하는 장면을 벽화로 남겼다.



그 겨울, 제주는 추웠다. 섬 한쪽에서는 포슬포슬 눈꽃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하루 종일 빗방울이 귀찮을 만큼 발뒤꿈치를 따라다녔다. 일찌감치 '따뜻한 남쪽나라'에 대한 기대를 비워내자 발걸음이 정처 없어진다. 여행 전 세웠던 거창한 계획들을 하나, 둘 지워가며 도리어 시간과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욕심을 덜어낸 딱 그만큼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일들만 남겨졌다. 마치, 새해 첫날의 거창한 다짐들이 시나브로 사그라지면 비로소 가장 간절히 원하던 단 한가지의 바람만 남듯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스스로에게 묻는다. 가장 간절히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부슬부슬 비 내리는 제주에서의 2016년 첫 걸음 이야기다.



### 동백, 붉은 꽃비 되어 내리다, '카멜리아 힐'

게으른 여행자의 등을 떠밀기에는 꺾은 날씨만한 것이 없다. 번덕스럽게 울고 웃는 제주 날씨를 결눈질하며, 붉은 숲길로 향한다. 한 사람을 향한 온건한 애정을 꽃말로 지닌 선명한 붉음이 천연덕스러운 바람의 끈질긴 구애에 비가 되어 흩어진다. 한바탕 난리를 치른 붉은 꽃송이들이 젖어든 바닥 위 고운 꽃길을 이루고, 그 꽃길을 따라가면 다시 꽃 숲에 이른다.

여름이면 수국이, 겨울이면 동백이 해사하게 만개하는 이곳은 볼 것 많고, 갈 곳 많은 제주에서도 제법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카멜리아 힐이다. 본래는 허허벌판이었던 황무지에 하나, 둘 꽃과 나무가 옮겨 심어져 지금의 꽃 숲을 이루기까지는 3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오래 시간 정성껏 보살핌을 받은 대지에는 어느덧



반쯤 벌어진 붉은 입술이 매혹적인 붉은 동백을 포함해 500여 개 품종의 동백, 6000여 그루가 울망졸망 모여 숲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간 숲엔 청명한 자연의 싱그러움과 다정한 온기가 가득하다.



간간히 흩뿌려지는 빗줄기를 피해 이리저리 헤매다보면 어렵지 않게 연못가 정자나 아담한 휴집을 만날 수 있고, 막다른 길에 다다를 쫓 한껏 고개를 젓으면 따듯하고 정감어린 문구로 채워진 가랜드도 발견할 수 있다. 흔히 동백꽃에는 향이 없다 생각하기 쉬운데 미약해서 그렇지 은은한 향을 품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향이 짙은 동백 품종도 여럿이라 살랑살랑 꽃향기에 취해 발길을 멈추는 일도 예사다. 비슷비슷한 길, 하지만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길을 걷은 동백꽃 향기에 취해 거닐다보면 어느새 나른한 기분마저 든다. 그렇게 한없이 조용한 숲 속 한가운데, 붉음보다 더 화려한 순백의 동백꽃과 마주하고 있자 새삼 이곳이 제주임을 조금 느리게 깨닫는다.

사진촬영 명소로 알려진 곳답게 매표소 안쪽에서는 촬영용 소품을 대여해주고, 숲 속 곳곳에 사진 포인트와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여럿이라 한껏 재미를 피우기에도 좋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제주답게, '협재해변'과 '한림공원'

어느 계절에 오든, 어떤 날씨에 오든 제주에 왔다면 그리고 제주를 가장 제주답게 만끽하고 싶다는 오름을 오르거나 바다로 향해야 한다. 한 겨울 단 한 줌의 햇살에도 황홀하게 반짝이는 제주의 바다에는 달큰한 맛이 있다. 그래서 무방비하게 정신을 팔다가는 금세 귤물이 발갱게 달아오르기 십상이지만 쉬이 눈길이 떨어지질 않는다.

제주 역시 덩치는 커도 섬은 섬인지라 섬 주변을 빙 둘러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해변들이 구석구석 숨어있다. 그 중 해안 도로를 따라 섬의 북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협재해변은 제주의 해변 중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손끝을 담그면 옮겨 물을 것 같은 선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새하얀 모래를 따라 일렁이고 그 앞으로 화산폭발로 인해 생겨난 비양도가 불쑥 고개를 내민다. 간혹 제주의 바다를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다른 나라의 바다에 비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주의 바다는 그저 더도 덜도 말고 딱 제주의 바당(바당의 제주방언)이다.

겨울바다를 볼 때면 으레 그렇듯 짧은 감탄과 긴 상념을 오가는 동안 꼭꼭 여민 코트 자락 사이로 겨울이 파고 든다. 떠날 시간, 그 사이 제주바다에 뭉롱이 취해 무거워진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다시 무더진 발걸음을 옮긴다.



협재해변 바로 반대편, 바다를 등지고 바라보면 키 큰 야자나무와 침엽수가 우거져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한림공원이다. 10만여 평의 부지에 테마별로 꾸며진 공원의 매력은 한적함이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제주에서 그나마 인적이 적은 편인데다 만개한 동백도 볼 수 있다. 또, 운이 좋다면 한껏 날개를 펼친 눈처럼 새하얀 공작새도 만날 수 있다.



### 욕심은 씻겨 물 길 따라 바다로 향한다, '천제연 폭포'와 '대포주상절리대'

욕심을 비워낸 여행은 한가롭다. 유유자적 놀멍 쉬멍, 떠도는 동안 어느새 겨울 짧은 해가 작별 인사를 시작한다. 그래도 예까지 왔으니 제주의 자랑이라는 폭포 하나쯤은 봐둬야 할 듯 싶어 천제연 폭포를 찾았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칠 선녀가 한밤중에 내려와 맑은 물에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깃든 폭포는 이 계절에도 질푸른 산림사이 오도카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기할 만큼 선명한 물색을 바라보는 동안 소란스러운 일상은 저 멀리 밀려난다. 그리고 그렇게 밀려난 생각들은 제주의 크고 작은 바위를 지나 먼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그 바다 한쪽에는 바람과 파도 그리고 시간이 공들여 조각한 해안절경들도 즐비하다. 정교하게 조각해 겹겹이 쌓아올린 검은 돌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서귀포시 중문동의 대포주상절리대도 그중 하나. 새파란 바다가 몸을 뒤척일 때면 높게는 20m이상 용솨음치는 파도는 두고두고 떠올릴 만큼 장관이다.



### 노곤한 온기를 찾아, '멘도롱 또뚝' 와 '제주도립미술관'

예로부터 들과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렀던 섬. 여전히 그 섬엔 바람이 참 많이 머문다. 다행이도 찬바람에 손끝이 얼얼해지기 시작할 쯤 주변을 둘러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만한 곳은 적지 않다. 더도 덜도 말고 딱 기분 좋을 만큼의 따뜻한 온기를 찾고자 드라마 '멘도롱 또뚝'의 촬영지로 향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할 만큼 바다 바로 곁에 세워진 키 낮은 건물은 노랑고 파란 선명한 원색을 품고 있어 까만 밤 등댓불처럼 쉽게 찾을 수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품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의 하루는 자연의 순리 그대로를 따른다. 애써 늦은 밤을 밝히려는 불빛을 세우지도 않고, 이른 아침 첫 햇살을 막기 위한 암막커튼도 없다. 당연히 아침과 밤 모두 이르게 찾아온다. 그래도 혹여 제주의 깊은 밤, 쉬이 잠들기 어렵다면 제주도립미술관을 추천한다. 물론 관람시간 이후라 미술품 관람은 어렵지만, 대신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색다른 밤 풍경을 사랑한다.





### 제주에서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제주해산물'

온난한 날씨와 섬이란 지리적 위치 덕분에 제주에는 물에서 만나기 어려운 특색 있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해녀가 직접 따온 통통하게 살 오른 전복이나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치, 옥돔, 문어, 고등어 등의 제주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로 차려낸 푸짐한 밥상은 제주 여행의 백미다. 후식으로 전구처럼 반짝이는 주홍빛 제주 굴 한 알을 손에 꼭 쥐고 있다면, 아이마냥 절로 웃음꽃이 터진다.



<글/사진. 권혜리>



## 고3 스트레스 없는 통일대한민국!!

이택중



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한  
공부라 잔소리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통일한국 참 좋네요. 고3 수험생 스트레스도 이제 옛말이에요!!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온가족 즐기는 석쇠구이

함경북도  
글산적



남해에서 나는 겨울 굴의 맛은  
우리나라 최고로 치지만, 북한에서도 겨울철  
굴은 필수 음식이다. 채소가 잘 나지 않는 북한 겨울의 특성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굴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일 것이다. 우리처럼 굴을 생으로 많이  
먹지만, 온가족이 화로 앞에 모여앉아 글산적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한다.



## 요리방법

1



1 꼬치에 들어갈 토란, 파, 새송이버섯을 굴과 비슷한 길이로 채썬다.

2



2 소금을 넣은 물에 굴을 넣어 살짝 데친다.

3



4





3 마늘은 뺀고 생강은 즙을 낸다. 간장에 파, 뺀은 마늘, 참기름, 생강즙, 후춧가루, 깨소금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꼬치에 굴, 버섯, 토란을 엇바꾸어 쎄 다음 석쇠에 올린다.



5 석쇠에 올린 꼬치를 양념장을 바르며 굽는다.



6 먹기 좋은 색으로 익으면 완성.

※ 굴산적에 들어간 다른 재료는 남한에서 자주 쓰는 식재료를 이용함.

▶ 요리연구가\_ 박민지

## 맛있는 굴, 그만큼 조심해야!

굴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철이며, 5월부터 8월까지는 산란기다. 예부터 '보리가 피면 굴을 먹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바닷물이 일정 수온 이상으로 따뜻해지면 굴에 마비성 독이 생겨나며, 과다하게 먹을 경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트에서 굴을 구입할 때는 생식용인지 가열용인지 잘 구분해서 먹어야 한다. 생식용 굴은 정화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가열용 굴은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먹는 것이 좋다.





안녕, 친구야? 나는 지금 환한 가을 학교 책상 위에서 너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이수현이라고 해. 우리가 서로 등을 들린 지 벌써 60년이 넘었구나. 1950년 6월 여름날의 새벽에 처음으로 시작된 치열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져.

지금 전 세계는 마치 너와 내가, 한반도의 북녘과 남녘이 처음부터 갈라진 별개의 역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마치 한반도 땅덩이가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는 그 38선을 따라서 둘로 쪼개지더라도 한 것처럼 말야. 나라 이름도 South Korea(남한)와 North Korea(북한)로 나뉘었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우리들 중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가슴 아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익숙하면 무더진다는 말도 있듯이, 반만년 우리 역사 중 고작 60년 남짓한 세월이 남은 수천 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가슴 아플 뿐이야.

그래, 나에게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지. 사실 이렇게 분단을 안타까워하며 통일을 부르짖는 나 역시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어. 세상은 우리가 나누어졌든 하나이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바빠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서로의 대치 탓에 지출되는 막대한 국방비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금전적 기회를 잃고, 하나둘씩 생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직 살아 계신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짓고 계시지.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아니면 적어도 통일을 원하는 조그만 소망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자성어 중에서 십사일반이라는 말이 있어. 열 손가락이면 밥 한 공기라 된다는 뜻이지. 나는 이 한자성어가 통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통일은 마치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밥을 지으려면 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불을 피우기 위한 쌀감도 필요하지.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밥을 지을 수 있어. 그리고 재료만 준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해. 불을 때고, 밥물을 재고,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밥을 짓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밥이 없으면 살 수 없어. 하지만 매일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밥이다 보니 그 중요성에 무감각해지기 쉬운 거지.

나는 통일이라는 밥을 지어서 한반도 전체에 고슬고슬 뿌리고 싶어. 마치 김밥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한반도 위에 정성스럽게 뿌리면 김 색깔처럼 어둡게 나뉘어진 한반도가 새하얗게 변하겠지?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나는 진심으로 변화를 원해. 한반도에서 분단으로 불행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오기를 바래.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를 소망해. 비록 나는 아직 열세 살 밖에 되지 않았고, 세상을 눈 깜박할 사이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한반도를 통일하는 외교관이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되어 통일의 필요성을 모든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거야.



우리가들로 나누어지기 전의 그 행복한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남북의 운동선수 팀이 하나 된 연등빛 한반도를 앞세워 Korea라는 이름 아래 형제애를 나눴던 그 경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반도의 두 책임자가 서로 결속되어 화합했으면! 남북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눴으면!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걸까? 이런 행복들은 왜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비록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나는 통일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통일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지까지 주고받고 있으니, 우리의 하나 된 마음은 서로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부디 내 메시지가 철조망을 넘어 너에게 전달되길..... 비록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같은 소망을 지니는 순간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니까.

2015. 10. 6  
대구송현초등학교 6-3  
이수현 씬...♡



안녕, 북한에서 살고 있을 동무야! 나는 남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소학교 친구야. 너는 가끔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꽃, 바람,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니?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가을이 오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 푸르른 하늘에 어여쁜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 그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북한 동무생각이 든단다. 그런 새들을 보면 참 부러워. 피가 섞인 한 민족임에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고통을 모르잖아. 단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무엇이든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도덕 시간에 통일에 대해 배웠어. 이에 대해 토론을 하며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봐도 친구들의 머릿속에 박힌 관념이 유리처럼 쉽게 깨지지 않는 것 같아.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있는데 확실한 정보 없이 무조건 '북한은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잘된 일일까? 사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억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아무리 아직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서로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배워가는 점도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런 날은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단다.

북한은 어떤 나라야? 내가 얼마 전에 엄마와 언니와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갔어. 거기에서 정말 놀란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가 고작 400m가 조금 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거야! 이 거리라면 육성으로도 소통이 가능한 거리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웠어. 그래도 건너편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북한 주민분들을 망원경을 통해 조그맣게나마 볼 수 있었어. 솔직히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사이에 두고 다른 나라라고 우기고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 물론 정치적인 문제, 문화, 사회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안타까움은 감춰지지 않았단다.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북한산도 가보고 북한의 친구들도 꼭 만나고 싶어. 정말 좋은 친구들이겠지?



내가 아는 친구 한 명 이야기를 해줄까? 예전에 친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서 말이야. 너는 이산가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너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에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있고, 그분도 6.25 전쟁 때 엄마랑 떨어진채 누나랑 단둘이서 사셨는데 그 시대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셨대.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뭘 줄 아니? 바로 북한과 남한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줬을 때 그 친구의 할아버지께서도 어머니를 만나셨던 거야. 그때 그 친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너무 생생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대. 할아버지는 정말 그때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평생 한이 되었을 텐데 다행히 돌아가시기 4달 전에 만나셨대. 내가 직접 느끼지 않았지만 나라도 그 때의 감정은 정말 눈에서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뭐랄까, 너무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다. 그래도 꾸준히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



혹시 달이 영어로 뭘지 알아? 문(moon)이야. 그리고 문으로 올라가는 문은 하나야. 우리가 여닫는 문 말이야. 내가 꿈을 꾸면 나는 항상 새하얀 비둘기가 되어 갈색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 그다음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문)에 올라가 절구를 가지고 있는 토끼와 이야기도 나누고 북한에도 가본단다. 내가 꿈에서 항상 달로 향하는 문은 참 공평해. 그 문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만나지 못한다고 문을 따로 두지 않잖아.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같은 문을 통해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니까. 우리 밤하늘을 올라가면서 서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모두 하자. 꼭 죽어서가 아니라도 누가 알아? 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자. 원래 노력해서 안 될 건 없어. 우리는 다른 곳에 있어도 한민족이고 친구고 이 세계를 빛낼 하나의 푸르른 새싹이잖아. 대신 꼭 내가 비둘기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고 문(달)에 들렀다 너 마음속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항상 열어놔야 해! 안녕!

언제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꿈꾸는 남한의 동무가





안녕? 나는 정다울이라고 해. 난 서울에 있는 우면동에 살아.

북한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엄마랑 친구들이랑 강화도에 가서 저 멀리 보이는 북한마을은 봤어. 친구야 나는 너무 궁금했어. 왜! 볼 수만 있고 갈 수는 없는 걸까? 나는 아직은 갈 수 없어. 하지만 걱정마. 바람에 내 이야기를 실려 보내줄게.

일요일에 놀이터에서 무지개를 봤어.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도 북한땅에서 저 무지개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땅은 막혀있지만 하늘은 막혀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는게 신기하지 않니? 마음으로도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통일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라는 마음 말 이야.

나는 얼마전에 '북한친구들의 놀이'라는 책을 읽었어. 친구야 나는 '하늘을 보아라'라는 놀이가 제일 재미있었어. 우리 통일되는 날 꼭 이 놀이 같이 하기로 약속, 도장, 복사, 싸인!

우리 서로 달님에게 소원 빌자. 그럼 안녕 ~

2015년 10월 27일  
친구 다름이가  
서울우암초등학교 1-행복



# '통일 등불을 밝혀라'

당선작

## 스포츠로 남북 이질감 극복하고 강국으로 도약할 것

글\_ 제임스\*

통일한국이 되면 가장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되지만 그중에서도 스포츠 강국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미 몇 번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한 바 있고, 탁구의 경우 세계선수권 우승, 청소년 축구는 강호 아르헨티나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던 바 있습니다. 그 감동의 드라마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결성된 팀의 성적이 이 정도인데 처음부터 한 팀으로 오랫동안 팀 워크와 조직력을 잘 다졌었다면 그 성적은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통일 후의 높은 성적에 대한 희망도 함께 그려보네요.

인적 자원의 증가 부분도 그렇고 특히 동계 스포츠의 경우 함경도 평안도의 자연지형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인프라로,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도 70년간 분단되었던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는데 이런 이질감 극복과 남북화합의 매개체로서 스포츠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에서 보았듯 스포츠만큼 온 국민이 화합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도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통일한국의 남북간 동질감의 회복, 체육교류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문화 학술분야 그리고 경제적 교류 등에서도 영킨 신타래 풀리듯 순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첨단산업 투자유치, 인류 평화의 아이콘 될 것

글\_ 강가\*

통일이 되면 개성공단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에 인접한 파주 국제평화공단이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 구축에 큰 동력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큼니다. 이미 LCD단지 조성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된 데다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분단과 평화의 상징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주는 국제평화도시로서의 대외 홍보에도 최적 입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파주-개성의 남북경협 벨트 조성 사업은 통일 후 남북한 민족번영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일한국의 상징성이 가장 큰 곳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베를린 장벽이 동·서독 통일의 상징인 것처럼 파주의 민통선과 도라산역 또한 남북통일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철도와 대륙철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꿈을 실현하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기점이 되는 곳으로서 도라산역 역시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첨단산업을 주력으로 한 투자유치 그리고 인류 평화의 아이콘으로 탈바꿈한 통일 후 파주시의 모습 그려보게 됩니다.

## 국방력 강화와 천연자원으로 부국의 꿈 이뤄요

글\_ 장편한\*\*

남북평화통일이 된다면 우선 국방력 강화를 손꼽을 수 있겠지요. 남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덕분에 안전하게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고 독도문제로 계속 일본과 부딪힐 일도 없어지게 될 거구요.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하면 주변국에서 함부로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를 결코 약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많은 양의 천연자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묵히고 있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채굴해서 통일한국이 사용해도 좋고 수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출에 따른 이익을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면 소비가 확대될 거고 소비가 늘면 기업들의 공급 또한 늘어나겠지요. 기업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늘려 공장을 새로 짓고 첨단화 하는 등 산업이 발전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질 거고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을 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경제는 돌고 도는 시스템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듯해요. 통일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군사력 강화와 천연 자원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봅니다. 백두산의 나머지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통일이 되어 남한 북한 모두 win win 하는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산가족들은 그간 애타게 그리던 가족들을 봐서 좋고, 국가적 측면으로는 자원이 생기니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어 좋고요.

물론, 남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통일이 될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Best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통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의 2015년은 어떠셨나요?  
올해를 마감하는 간단한 소감과  
2016 통일희망메시지를 남겨주세요^^

- 응모기간 2015.12.29. ~ 2016.01.15.
- 응모방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 당첨자수 10명
- 시상내역 파리바게뜨 녹차 카스테라
- 당첨자발표 1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 '2025 타임캡슐' 이벤트

번호	이메일 아이디	이름
1	**monism	아몬드
2	**24705	덕삼이
3	**vehm84	타임캡슐
4	**geryoo	유광열
5	**nover	쌍쓰이

### ★ '통일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아이디	아이디
1	**e215	나르샤썬
2	**yahot287	51k
3	**tistlyj	예술의신
4	**atrizjung	아르정
5	**omijaseo	부시우먼
6	**hy0326	스마일포포
7	**eran61	미스
8	**riljeon	별별무슨별
9	**spmy	박민영
10	**okzzibu1	꼭지버
11	**sca89	김훈
12	**reny2002	나르니
13	**if22nd	빠바

14	**stoption2	TORRES9
15	**podi0408	이진화
16	**ter2126	초랑목마
17	**stjddka	초원의별
18	**b0523	E편한 통일
19	**h0518	하루가길어
20	**kilbum	블랙호크스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 아이디	번호	이메일 아이디
1	**nyoum	16	**hlove1990
2	**y0425	17	**foodstyle
3	**tistlyj	18	**lsasss
4	**sporter	19	**ssudgo
5	**zkr	20	**jgook01
6	**pine	21	**007bang
7	**atrizjung	22	**gbgk56
8	**href1105	23	**rpaanjdal
9	**1982ko	24	**tlove
10	**r328	25	**rsee
11	**kksshott	26	**lal11
12	**khero	27	**d931120
13	**hwamail	28	**akswha
14	**c.707	29	**fathrdp
15	**esukangel	30	**saud65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이메일 아이디	번호	이메일 아이디
1	**dreamforme	26	**g0910
2	**k20000	27	*ym
3	**enny	28	**ekang1102
4	**k0717	29	**n891120
5	**bi1973	30	**ttlelambs1004

6	**3bu3	31	**href1105
7	**un0858	32	**w1125
8	**tyrun	33	**rankokkiri
9	**a0552	34	**c7581
10	**tyhyun	35	**y01025457027
11	**6054	36	**bonco30
12	**8454153	37	**tio
13	**nok1204	38	**kang
14	**sxxg001	39	**yangels
15	**mman76	40	**jm1318
16	**jeon0207	41	**nin63
17	**s20c	42	**train
18	**2118062	43	**ger_chae
19	**ngjjune	44	**sdy
20	**rysun	45	**sdo8655
21	**hak1115	46	**ans1
22	**mchang999	47	**r0310
23	**ngger99	48	**s214
24	**inayun	49	**nsangmyung
25	**okzzibu1	50	**nsemi0117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